

## 독일, 6세부터 노후 준비 제도 추진

### 은퇴자금 부족 대비...정부가 월 10유로씩 지급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은퇴 뒤에도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가 늘자 독일이 만 6세부터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에 나섰다.

CNBC 보도에 따르면, 독일 연립정부는 6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 연금 제

도'를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전통적인 연금처럼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아동에게 매월 10유로(약 11달러)를 지급해 연금 계좌에 자동 저축되도록 하는 구조다.

적립 기간인 12년 동안 아동 1인당 받을 수 있는 총액은 1,440유로 이상에 달하며, 여기에 복리 이자까지 더해질 경우 상당한 자산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 18세가 되면 본인 자금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으며, 투자 수익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이 계좌에 있는 자금은 법정 은퇴 연령(현재 독일 기준 67세)에 도달해야 인출이 가능하다.

독일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국가 연금 제도의 안정성 강화, 기업 연금 및 사적 연금 개혁, 젊은 세대의 펀드 기반 노후 준비 확대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대변인은 경제 전문지 포천과의 인터뷰에서 "이른 시기의 저축 시작이 미래의 재정적 자유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후 준비는 전 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고령 부모와 자녀 세대를 동시에 부양하는 중년층이 늘고 단순한 생존이 아닌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원하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의 약 20%, 즉 약 1,100만 명이 여전히 고용 상태에 있으며, 이는 1980년대에 비해 4배 증가한 수치다. 영국에서도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 후반이 비자발적 재취업을 하거나 이를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은퇴 준비는 결코 이르지 않다는 사실이 부각되며, 많은 전문가들이 조기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5세부터 65세까지 매달 100달러를 연평균 12% 수익률의 투자 계좌에 넣으면, 은퇴 시점에 약 118만 8,342달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30세부터 같은 방식으로 시작한다면, 금액은 64만 9,626달러로 줄어든다.

사진=shutterstock

## LV 호텔, 생수 한 병에 26달러

### "카지노보다 더한 바가지요금" 비난

라스베이거스의 한 고급 호텔이 객실 내 미니바 생수 한 병에 거의 30달러를 청구해 온라인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른바 '생수 바가지요금' 논란은 여행 블로그 '비행기 날개에서 본 세상'에 올라온 한 투숙객의 제보와 사진을 통해 알려졌다.

익명의 제보자가 머문 리조트 호텔의 숙박 요금은 하루 밤 최소 280달러부터 시작한다.

게시글에 따르면, 미니바를 청소하던 직원이 물 한 병의 가격이 26달러라고 알린 것은 투숙객이 이미 물을 마신 이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생수 한 병의 가격은 259달러에 달했던 투숙 요금의 10%를 넘는 금액이었다.

더 큰 문제는, 같은 생수가 호텔 아래층 스타벅스에서는 단 7.45달러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호텔 미니바가 본래 고가로 알려져 있던 하지만, 이 호텔의 다른 미니바 품목들은 이처럼 비싸지 않았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실제로 페이스북에 공유된 미니바 가격 표에는 코카콜라 디럭스가 13.75달러로 표시돼 있었

LAS VEGAS	
DESCRIPTION	CHARGES
08 Deposit Applied	
08 ARIA Refreshment Center (NT)	26.00
08 Room Rate	228.00
08 Room Tax	30.61

▲ 제보자가 마신 생수와 호텔로부터 받은 청구서. 사진=viewfromthewing.com

며, 이는 생수 한 병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한 여행객은 "이게 편의성을 위한 정당한 가격인지, 아니면 명백한 바가지인지 생각해보라"고 반문하며 영수증 사진을 공유했다.

댓글란에서도 비난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거기 다녀왔는데, 정말 충격이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라

스베이거스가 예전 같지 않다. 관광객 감소로 이런 터무니없는 가격에 의존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여행 블로그의 필자는 이같은 사례를 "라스베이거스 여행 중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전형적인 이탈리아 비용"이라 표현하며 "도시 자체에 대한 인상을 나쁘게 만들 수 있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언급한 '다이아몬드-물의 역설'을 인용하며, "물이 생존에 필수지만 싸고, 다이아몬드는 생존과 무관하지만 희소성 때문에 비싸다"는 이론을 비꼬았다. 이어 "이 호텔은 사막에서의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했고, 생존에 필요한 물을 투숙객에게 엄청난 가격에 팔고 있다"며 "라스베이거스는 이제 환대 정신을 포기한 듯하다"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호텔비를 생각하면, 최소한 생수 한 병 정도는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상식적인 가격 책정은 라스베이거스 여행자들에게 나쁜 인상을 남기고, 지역 관광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 각종 디스크 및 협착증세 치료 최고 권위 전문의!

디스크 협착증 증세로 고통 받는 분들이 수술 않고, 통증 없는 치료 후 기적 같으며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 모습 보며 큰 보람을 느낍니다.

목·허리 디스크 탈출증 / 좌골신경통 / 퇴행성 디스크 / 척추관협착증 / 만성요통

\* 각종보험 및 메디케어 환영 (HMO Group : SMG, CENTER 환영)

진료과목 (각종 근육, 신경장애 및 스트레스성 통증)

- 머리 두통/어지럼증/안면마비증세
- 목 목디스크 (팔과 손가락 통증 및 마비증상 동반) / 목 통증 및 뻣뻣한 증상
- 어깨 굳거나 빠른 통증 / 어깨가 안돌아가는 증상 (Frozen Shoulder) / 오십견 / 견비통
- 등 척추측만증 (Scoliosis) 특수교정 (특히 초등학교생 때 조기 검진중요)
- 허리 허리디스크 및 협착증 (엉치, 다리, 발바닥 및 발가락 저림, 마비증상 동반) / 퇴행성 관절염 / 요통 / 산후 허리통증
- 팔 팔꿈치 통증 / Tennis Elbow / 손목 / Carpal Tunnel Syndrome / 손, 손가락 저림증 및 무감각 증상
- 다리 좌골신경통 (다리, 발바닥, 발가락 통증, 저림 및 마비증상 동반) / 무릎통증 / 발목통증 / 변증상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및  
각종 일반사고  
후유증 전문치료



• 31년의 풍부한 임상경험  
• 흉내 낼 수 없는 풍부한 의학 지식  
• DRX 9000 (최첨단 디스크 감압치료기) 위에 3가지가 모두 함께 공존하며 운동준 원장이 직접 정성으로 치료하기에, 정확한 진단과 누구도 흉내 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성공률의 각종 디스크 치료의 "최고 권위 전문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Dr. 윤동준

서울대학교/ UC Irvine  
LA 척추신경의대  
CA척추신경보드 전문의  
CA척추신경협회 정회원  
미주척추신경협회 정회원  
가든 그로브 개업 31년



윤동준 척추신경 병원 714.539.1717  
12620 Brookhurst St. #5, Garden Grove

